방생순례

방생법회는 잡혀서 죽게 되어있는 물고기 날짐승 길짐승을 살려줌으로서
수명장수와 재난과 악이 소멸되고 복을 짓는 인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법회에 동참하시어 좋은 인연과 복락 짓는 법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68(2024)년 **3**월 **27**일(음2월 18일) 수요일
- **장　소** : 안면암, 개심사, 수덕사
- **동참금** : **5**만원(교통비, 방생동참금)
- **문　의** : 원주실 (043) 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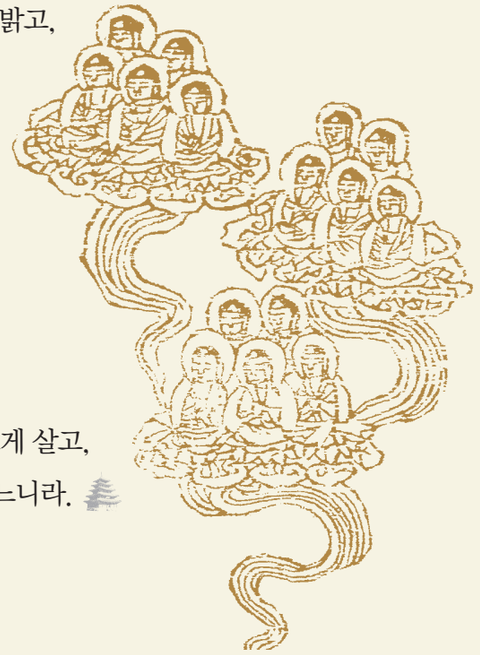
www.beopjusa.org 2024 | 3

부처님 말씀 계행 청정 / **이달의 법문** 말에 끄달리지 말라 / **주지스님 법문** 근심걱정 / **걸망메고** 끝의 시작 / **감로의글** 바르도 퇴돌 / **수행여화** 조금은 불편해야 행복하다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소식** /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운맞이 일년기도** / **불기2568편 연등모연문** / **방생순례**



계행 청정

부처님께서 사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계행戒行을 청정淸淨하게 가지는데 열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보살이 모든 계행을 굳게 가져 파하지 아니하면
어두움에 있어도 밝은 것이 되고,
계행을 굳게 가져 모든 허물을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면 재앙이 침해하지 못하고,
계행을 굳게 가지면 그릇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죄 되는 일이 멀리 떠나고,
계행을 청정히 가지면 백옥처럼 결백하고 일월과 같이 항상 밝고,
계행을 가지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에 따라
모든 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계행을 가지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에 따라
모든 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계행을 굳게 가져서 잘못됨이 없으므로 공포심이 없고,
계행을 굳게 가져서 잘 지키면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육근이 혼탁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계행을 굳게 가지면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바르게 살고,
계행을 굳게 가지면 마음이 청정하여 모든 일이 청정하여지느니라.
〈보살장법장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4 3 | 통권 386호



2 부처님 말씀 계행 청정
4 이달의 법문 말에 끄달리지 말라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8 주지스님 법문 근심걱정 정도 스님
10 걸망메고 끝의 시작 진정 스님
12 감로의글 바르도 퇴돌 장산 스님
15 수행여화 조금은 불편해야 행복하다 현진 스님
18 법주사 행사일정
19 법주사 소식
20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21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22 운맞이 일년기도
23 불기 2568년 연등모연문
24 방생순례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8(단기4357)년 3월호 통권 386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말에 끄달리지 말라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는 깨친 듯하다가도 실지 경계에 다다르면 그만 아득하게 된다.
이는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린 것이다. 생사를 막아내려면 한 생각을 탁 깨뜨려야 비로소 생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생각을 깨친 뒤라도 반드시 밝은 스승을 찾아가 눈이 바른가를
점검 받아야 한다. 옛 어른은 말씀하기를 '다만 자네의 눈이 바른 것만 귀하게 여길 따름이지
자네의 행실을 보려고 하지 않네.' 라고 했다.
서산대사가 〈선가귀감〉에서 이르신 이 말씀은 공부하는 사람이 늘 가슴에 새겨야 할 간절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글이나 몇 줄 읽었다고 불법을 다 아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서
큰 깨우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불교 공부는 말이나 문자를 배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선종에서 불립문자不立文字를
강조하는 것은 말이나 문자에 현혹되어 공부에 소홀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들을 때는 그럴 듯하다가도 듣고 나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데
누가 와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하며 위로의 말을 많이 해 주었다고 해서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말로는 다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구산선문 가운데 가지산문의 도의국사, 실상산문의 홍척국사, 동리산문의 혜철국사가 찾아가
선법을 배운 서당지장西堂智藏화상은 학문에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 선승이었습니다.
이 스님은 마조도일의 제자로서 선원청규를 제정해 선문을 크게 일으킨 백장회해百丈懷海와
동위입실同位入室한 사람입니다. 마조대사는 두 사람을 평하되 '경은 창고(藏:지장)로 돌아갔고
선은 바다(海:회해)로 돌아갔다.'고 할 정도로 신뢰가 컸습니다. 스님은 경학에도 남다른 조예가 있었지만
그것은 자랑하거나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스님인지라 남 앞에서 유식을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 교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예화는 스님이 유식을 자랑하는 속인들을
어떻게 혼내 주고 가르치는지를 말해 줍니다.
어느 날 글 깨나 읽고 선지식을 두루 방문한 수재秀才라는 사람이 찾아와 천당과 지옥이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삼보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물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건방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경산법흠徑山法欽화상에게 물어보았더니
화상은 그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대에게 아내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기다렸다가 스님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경산 화상은 안팎을 잘 다스려 이치와 행이 구족하시니 일체가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대는 삼계의 범부로서 처자를 껴안고 사는 지옥찌꺼기인데 어찌 모든 것이 없다고 하는가.
만약 네가 경산 화상처럼 산다면 없다고 해도 좋으리라."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서尙書 벼슬을 하는 이호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화상을 기다리는 사이
그 절에 있던 어떤 납자에게 법력을 시험하느라고 마조 대사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물었습니다.
납자는 "어떤 때는 마음이 부처(是心是佛)라 하시고, 어떤 때는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非心非佛)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두 형편없다면서 빈정댔습니다.
조금 뒤 화상이 외출에서 돌아오자 이호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호!"
화상이 질문하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네"
하고 대답을 하자 스님은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북과 피리소리가 나는구나."
〈전심법요傳心法要〉라는 유명한 책을 남긴 황벽희운黃檗希運선사가 상공 배휴를 만나 혼내준 얘기도
유명합니다. 화상은 백장 선사의 법을 이었는데 한때는 신분을 숨기고 제방을 편력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화상은 홍주洪州 용흥사龍興寺라는 절에서 마당이나 청소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홍주의 자사인 배휴裵休가 찾아와 어떤 납자와 이런 문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영각影閣안에 있는 그림이 무엇이요?"
"고승의 영정이외다."
"형상인즉 볼 만하나 고승은 어디에 있소?"
납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배휴가 물었습니다.
"이 절에는 선승이 없소?"
"근래에 한 스님이 와 있는데 아마도 그가 선승인 것 같소이다."
배휴는 그 선승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납자들이 황벽스님을 모셔오자
배휴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벽스님은 큰 소리로 자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배휴!"
배휴가 엉겁결에 "네"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고?"배휴는 이 말에 바로 귀가 열렸습니다. 배휴는 그 자리에서
제자의 예를 올리고 조석으로 문안하였습니다. 그 후 황벽스님은 배휴의 청을 받아들여
완릉의 개원사, 홍주의 대안사에 머물면서 교화를 폈는데 이때 그 문하에서 저 유명한 임제의현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제방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완릉록〉과 〈전심법요〉는 이 무렵 배휴가
황벽스님을 찾아 뵙고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식함을 자랑하다가 스님에게 혼난 사람으로는 팔대문장가로 소문이 높았던
소동파蘇東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형남에 있을 때 옥천사에 승호承皓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도예道譽가 아주 높은 분이었습니다.
동파는 스님의 법력을 시험해 볼 요량으로 어느 날 옥천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잔 내 놓고 물었습니다.
"공부가 높으신 대인 같은데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의 성은 칭가秤哥라고 합니다."
"칭가라니 무슨 뜻입니까?"
"천하 선지식의 법력을 달아보는 저울이란 말이외다."
소동파의 말이 떨어지자 마자 승호스님이 대갈大喝을 했습니다.
그 통에 소동파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칭선생, 이 고함소리는 몇 근이나 되는지요?"
소동파는 그만 말문이 막혀 스님에게 무릎을 꿇고 법을 물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는 강호를 돌며 큰스님의 무게를 다는 일도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무릇 모든 지식이란 이와 같아서 어떤 경계를 만나면 쓸모없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지식이란 기본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머리를 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지혜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른 깨달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니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기 바랍니다.

虛空境界豈思量　허공 경계를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大道淸幽理更長　큰 도는 크고 맑아 이치 또한 깊나니
但得五湖風月在　오호의 풍월을 알기만 하면
春來依舊百花香　봄이 올 때 여전히 꽃향기 가득하리라.

언구言句에서 불법을 구할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호에서 풍월을 얻으려면 먼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온몸으로 불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비록 문자나 언구가 부족하더라도 그 안목이 어떤가를 살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근심걱정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요즘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심걱정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도
평소의 모습으로 먹고 설거지 하고 일하고
기도하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평화를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수십 배 걱정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걱정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상황이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의 시작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인생은 적극적 · 능동적인 선업을 쌓아가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갑진년 한해에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보시 공덕과 탐욕심을 여의고 바른 불자가 되어서
선업을 쌓을 수 있기를 발원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가고 갑진년의 새 봄이
찾아 왔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발원 드립니다.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세상으로부터
찾아 왔고, 허락하지 않았어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갔다. 그는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떠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어떠한 탄식이
있을 수 있는가!
– 자타카 말씀 –

망망한 광야에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뒤에서 무서운 코끼리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생사를 눈앞에 두고 정신없이 달아나다 보니
언덕 밑에 우물이 있는데,
등나무 넝쿨이 그 속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등나무 넝쿨을 하나 붙들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겨우 숨을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물 밑의 샘에는 독룡이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었으며, 우물 중턱 사방에는
네 마리의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등나무 넝쿨을 생명 줄로 삼아
공중에 매달려 있자니 두 팔은 아파서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매달려 있는
그 등나무 위에는 흰 쥐와 검은 쥐 두 마리가 나타나
그 등 넝쿨을 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황 중에 얼핏 머리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등나무 위에 있는 벌집 속에서 달콤한 꿀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꿀을 받아먹는 동안에는 자기가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지조차도 모두 잊고
황홀경에 도취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을 묘사한 부처님의 비유 말씀으로
'한 사람'이란 생사고해를 헤매는
모든 중생의 고독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망망한 광야'는 중생이 지은바 업業에 따라
윤회한다는 지옥 · 아귀 · 축생 · 아수라 · 인간
하늘의 여섯 육도 세계이며, '쫓아오는 코끼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홀연히 목숨을 앗아가는
살귀殺鬼요, '우물'은 이 세상이며,
'독룡'은 지옥이고, '네 마리의' 뱀은
이 몸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흙 · 물 · 불 · 바람의
사대이며, '등나무'는 괴로움의 결실을 맺는
중생의 어리석음이요, '등 넝쿨'은 사람의
생명줄이고, '흰 쥐와 검은 쥐'는 일월이
교차하는 낮과 밤이며, '벌집 속의 꿀'은
눈앞의 오욕락五欲樂이란 것으로 바로 재물과
색色과 음식과 잠과 명예욕이란 놈이지요.
인생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업보業報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이란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거나
팔자소관이라거나 하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전혀 잘못된 견해이다.
숙명론(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믿음)이
인생의 행 · 불행을 좌우한다면 우리에겐 희망도
없을 것이고, 종교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과거 · 현재 · 미래를 통하여
'짓는 행위'를 뜻한다. 과거의 업보도 현재의
행위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위 개운開運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인생이 짓는바 행위(업)에 따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행위는 금생의 나를 만들었지만,
나의 행위에 따라 미래는 결정되는 것이
(欲知前生事 今生受者是 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인생은 적극적 · 능동적인 선업을
쌓아가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갑진년 한해에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보시 공덕과 탐욕심을 여의고 바른 불자가 되어서
선업을 쌓을 수 있기를 발원 드립니다.

바르도 퇴돌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티베트인들은 죽어 저승 가는 길을
"바르도 퇴돌(Bardo Toedol)"이라 부른다.
'바르도'란 '여기서 저기'라는 둘 사이 간격을
말한다. 그러니까 바르도란 '다리'
즉,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다리란 뜻이 있다.
'퇴돌'이란 가르침을 듣고 자유로워진다,
해탈한다는 뜻. 여기서 바르도 퇴돌의 주서적은
'死者의 書(파드마 삼바바 저)'이다.
여기서 저 다리를 건너면 저승이다.
이승과 저승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3개의 바르도를 건너야 한다고
한다. 그 첫 번째는 죽음 직후에 온다.
저승의 문턱을 넘은 영혼은 자신이
육신(색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알지 못한다.
이때 우주의 근원으로부터 흰빛이 비쳐오는데,
이 빛을 감지하고 온전히 그 빛 속에 머물면
해탈자재에 이른다 한다.
육신으로 있을 때 수행해서 해탈할 수 있지만
죽음 뒤에도 해탈의 기회는 있는 것이다.
죽음의 순간에 정신을 잃지 않고 그 흰 광명을
의식하고 그 빛을 수용하면 즉, 법신의 광명을
수용하면 해탈자재인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의 순간,
의식을 잃거나 수면이나 트랜스(trance) 상태에
있으므로 그것(빛)을 감지하지 못한다.
어렴풋이 감지하더라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흘러간다. 이 첫 번째 바르도를 넘어가면
두 번째 바르도(건널목의 다리, 장르)로 넘어간다.
이 두 번째 바르도에서는 생전에 그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업들이 영화관의 영화처럼
눈 앞에 펼쳐지고 자신이 생전에
경험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또, 그렇게 삶의 희망을 꿈꾼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것이(중생들의 삶)
허상虛像인 줄 모르고 그러한 미망迷妄에 빠진
생전의 삶을 그리워하게 된다.
〈死者의 書〉에서는 말한다.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런 영상들이
허상임을 깨우치면 곧 해탈을 얻는다고 한다.
물질세계가 실상인줄 알고 살던 인간들이
그것이 신기루처럼 허망한 것인 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의 관념에 사로잡혀 더욱더
생전의 삶에 미련을 떨치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육체를 가지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마침내 세 번째 바르도에 이르게 되니,
바로 '환생의 바르도'다.
그래서, 자신이 지어놓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지옥중생이 되기도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도 복력의 차이에 따라
여러 등급의 인간이 된다.
인격은 평등하나 복력은 차등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空이요, 연기의 법칙이다.
만인의 인격은 평등하나,
사는 것은 차등이 있는 것이다.
〈만법개공〔萬法皆空〕 인과불공〔因果不空〕.〉

이렇게 해서 '사자死者의 바르도 3단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산 사람도 3단계의 바르도가 있다.
첫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여정人生旅程이 그 첫 번째 바르도요,
그러니 장주의 '호접지몽胡蝶之夢'과 같은 것이다.
삶의 현장을 실제로 생각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한낱 꿈과
같은 것이다. 꿈을 어떻게 잘 꾸느냐가 문제다.
악몽도 길몽도 모두 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다.
둘째는 일상의 수면에서 꾸는 꿈이다.
우리가 잘 때 영혼이 다른 세계로 여행하고
새벽에 다시 우리 몸속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니,
그 또한 저승의 다리를 건너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이유로 경전공부와
좋은 지식을 많이 함양해서 길몽을 꾸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꿈을 분석해 보고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고 개척할 수도 있다.
매일매일 꾸는 것이 아니지만 〈꿈 일기장〉을 만들어
자신을 관찰하여 나쁜 습관은 고치고 장점은
더욱 노력해서 개발할 수 있다.
삶의 세 번째 바르도는 '명상冥想'이다.
스님들이 하는 '좌선坐禪'이라 해도 좋다.
꿈은 잠잘 때 영혼의 여행이라면
명상은 깨어있는 의식으로써의 영혼의
여행인 것이다. 명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선 복잡한 마음을 평온하게 정리해 줄 뿐더러
깊은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진실한 면목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불가에서는 좌선을 통한 선정이라 하는데,
그것은 제1선정천 제 2, 제 3, 제 4선정천이 있어
제 4선정천을 통과하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러
해탈자재인이 된다 한다.
이처럼 바르도는 우리 영혼의 주인공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육신은 이승을 떠날 때 벗어두고
가면 그만이지만, 영혼은 이승이나 저승에서
늘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도는 영혼이 건너야 할
단계적 다리이다. 지혜의 안목으로 높은 단계의
바르도를 행할지 어리석음으로 낮은 단계의
바르도를 행할지는 각자의 신념信念과
노력 여하에 있다 할 것이다. 대승 경전을 보고
그 뜻을 알고 수행에 매진하는 일은 매우 훌륭한 일,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는 한바탕의
꿈 속 일일 수 밖에, 부처님처럼 적멸궁에 장엄해
계시려면 반야의 투철한 지혜로써
공성空性을 깨우치는 것이다.

사대각리여몽중四大各離如夢中
육진심식본래공六塵心識本來空
욕식불조회광처欲識佛祖回光處
일락서산월출동日落西山月出東

사대가 흩어지는 것이 꿈속의 일과 같고,
육진심식이 본래로 공(空)한 것이다.
불조가 빛을 돌이킨 곳을 알고자 하는가!
서산에 해지고 동쪽에 달 떠오른다.

●●수행여화

조금은 불편해야 행복하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겨울 햇살에 기대여 목공 작업으로 오후 시간을 보냈다.
톱과 망치를 꺼내놓고 뚝딱뚝딱 못질하고 있느니 그 어느 때보다 내 의식은
맑고 조촐했다. 목재를 만지고 자르는 일은 늘 흥미롭다.
이번엔 쓰다 남은 송판들을 이용하여 새장을 만들고 먹이용 식탁도 만들었다.
어설프지만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내 손으로 완성해 보았다.
그야말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톱과 망치만 사용했다. 아마 목공 장비가 있었더라면
자르고 오리는 일이 힘들지 않을뿐더러 시간도 절약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편하지만 느리게 완성하는 재미가 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만의 목공실을 갖고 싶지만 아직은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고 싶다. 오늘 이 일을 통해 편리한 삶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눈부신 기술 혁명이 생활을 더 편리하게, 더 빠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그렇다 하여 과거 불편한 시대보다 더 행복할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촌 어떤 물건이든 구할 수 있고, 집을 나가지 않고서도 신선한 식품의 주문배달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쿠세권(일일 쿠팡 배송지역)',
'슬세권(슬리퍼 쇼핑 지역)' 이란 말도 생겼다. 그렇지만 스마트폰 출시 이전보다
행복 지수가 높아졌느냐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필요할 것 같다.
객관적 지표가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생활이 안정되고 편리해졌다 하여
반드시 행복 요건이 충족되는 건 아닐 것이다. 범죄와 자살률은 늘어나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사회적 병리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 국민총생산지수와
국민행복지수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하므로 불편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자급자족하는 비문명의 삶이

더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다.
어쩌면 불편한 과정도 행복의 요소일 것이다.
예를 들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는 과정이 성가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즐긴다면 행복의 요소가 된다.
보일러 스위치를 켜고 농산물을 배달해서 먹는다면
신속하고 편리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재미가 없다. 그런데 편리한 시스템은 수시로
기능이 개선되어 그 기능을 학습하고 따라가는
그것도 스트레스다.
나는 적당히 불편한 것이 때로는 행복의 비결이다는
말에 동의하는 쪽이다. 불편함이 주는 묘한 맛이
있다. 개인의 부가 증진되고 생활이 향상되면
지상낙원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결핍되고 불편해야
행복할까 하는 역설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약간의 불편함을 자신의 삶에서 허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편리를 추구하는 시대의 조류에
한가지라도 저항하지 않으면 순도 높은 행복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보람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작은 불편 정도는 투덜대지 말자는 것. 사소한 불편은
우릴 부지런하게 만들어 주는 스승이다.
지금 세대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있다. 지혜로운 인간이
아니라 지혜로운 기계만 있는 시대다.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세대를
표현한 말인데, 공감된다. 지금 세대는
기계 다루는 일은 능숙할지 모르나 그 편리함도
불편함을 경험해봐야 고마운 줄 아는 법.
이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 행복 수치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하기에 스마트폰 이후가
그 이전보다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므로 문명의 이기가 꼭 행복 공식은 아니라는 뜻.
옛사람의 글에 '편즉불행便卽不幸,
불편즉행不便卽幸'이란 말이 있다.
편리를 추구하면 불행하고, 불편을 수용하면
행복하다는 뜻이다. 세상은 점차 편리해지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늘어가고 있다. 쉽고 편리하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생산해 낼 때
존재 의미가 있다. 이런 관점이라면 흙을 일구며
땅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도 행복의 영역 같기도
하다. 나도 최근에야 '리스틱 라이프'라는 단어를
알았다. '시골에서의 삶', '촌놈으로 사는 삶' 정도로
풀이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도심을 떠나 느리게,
또는 불편하게 사는 생활 방식을 말한다.
자연 친화적인 이런 취미를 지닌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이른바 불 멍, 논밭 뷰 등
시골형 생활 방식을 동경하는 사람들이다.
뭐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 생활에 질린 사람들이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서 생긴 용어다.
두서없이 내 생각을 나열했으나 결론은
충족한 삶이냐? 충만한 삶이냐에 달려 있다.
충족의 삶은 계속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만
충만한 삶은 지금 상태로 만족이다.
충족의 삶은 끝이 없다. 왜냐하면 욕망의
재생산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나를 가졌기에
두 개를 채우고 싶은 게 충족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만족하는 삶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고금을 통해 검증된 행복론이다.
시대가 달라졌다 하여 인간 본능이 달라진 건
아니니까 이 법칙은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불편하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온 시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의 심층에는
불편함을 기억하고 즐기는 심리가 존재할지 모른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희열을 느끼는 것 아니겠는가.
편리함에 너무 익숙하면 인간의 근원적 얼과 지혜가
녹슬고 만다. 손쉽고 편리하면 일의 효율은
늘어날지 몰라도 삶의 질은 역행할지 모른다.
그런 함정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분수에 어울리는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안락한 삶을 뛰어넘어 충만한 삶에 이르고자 한다면
편리한 늪에 갖히면 안된다.
편리한 문명의 연장에 길들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없으면 없는 데로
불편하면 불편한 데로

토굴 같은 암자에 지내고 있는
어느 스님의 부엌 훈訓이다.
차를 마실 예정이다.



포근하고 따듯한 법주사의 봄

봄의 향기를 머금은 법주사

법주사의 따듯한 봄은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와 많이 닮았습니다.
따스한 햇볕과 법주사의 아름다운 전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법구경

2024. 3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1.21 삼일절	2 22 광명진언기도
3 23	4 24 관음재일	5 25 합창단법회	6 26	7 27	8 28	9 29
10 2.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11 2 다도반법회	12 3 신중기도회향	13 4	14 5	15 6	16 7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17 8 약사재일 출가재일	18 우수 9	19 10	20 11	21 12	22 13	23 14
24 보름 열반재일 15 31 22	25 16 미륵재일 다도반법회	26 17	27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28 19	29 20	30 21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2월 4일 삼재기도



2월 4일 입춘기도



2월 20일 승가대학 졸업식



2월 26일 사천왕재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2024년 **3**월 **2**일(음 1월 21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2024년 **3**월 **16**일(음 2월 7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2**만원
- **장 소** 법주사 대웅보전



미륵재일 기도

다가올 미래에 공덕과 불법을 펼쳐 중생들을 교화해 주시는
미륵부처님께 매달 미륵재일마다 모든 중생들의 업장을 참회하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발원합니다

- **일 시** 매월(음) **16~18**일
- **동참금** 가족당 **2**만원 (농협 403020 - 51-010482)
- **문 의** 원주실 (043) 543-4755

초하루 신중기도

매달 초삼일 동안 불보살님과 불법을 옹호하고 중생을 보호해 주시는
104위 신중님께 신중기도를 드리면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가정이 화목해지며
사업이 번창한다고 합니다



- **일 시** 매월(음) **초하루 ~ 초삼일**
- **동참금** 가족당 **2**만원 (농협 403020 - 51-010482)
- **문 의** 원주실 (043) 543-4755

운맞이 일년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대웅보전에서 새해 운맞이 일년기도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가족의 건강과 소원성취 이루십시오.

- **입　　재** : 불기 2568(2024)년 **1**월　　**1**일(음 11월 20일) 월요일
- **회　　향** : 불기 2568(2024)년 **12**월 **31**일(음 12월　1일) 화요일
- **동 참 금** : **3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모연문

갑진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속리산 법주사 청정도량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진리의 법광이 비추어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대웅보전** : 30만원
- **능 인 전** : 20만원
- **미 륵 전** : 10만원
- **삼 성 각** : 10만원
- **약 사 전** : 10만원
- **명 부 전** : 10만원
- **영 가 등** : 1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